

## 한국지리지 -충청편-

대한지리학회 부설 지리연구소 편,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3, 437쪽

인간의 삶의 터전인 지표위의 지역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 지리학이다. 이런 정의에 근거할 때, 지리학의 많은 연구성과 중에서 가장 지리학적인 연구성과를 꼽으면, 그것은 다름 아닌 지방지(topography) 또는 지역지(chorography)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터전에 대한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지역지이기 때문이다. 지역지가 갖는 전술한 특징 때문에 17세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국가지(國家誌)로서 지리지를 발간하였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지로서의 지리지'에 대한 편찬과 발간은 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20세기에는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 또는 단체에 의해 발간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리지는 국가 영토와 지역에 대한 특징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서적임과 동시에 행정 행위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 표준 지침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중심이 되어 편찬·발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이후 국가가 중심이 되어 편찬·발간한 대표적인 지리지는 1980년대에 발행된 한국지리지(韓國地誌) 총론과 4권의 지방편(서울·인천·경기, 강원·충남북, 영남, 호남·제주)이 그것이다. 대한지리학회가 편찬의 주체가 되고 국립지리원에 의해 발간된 한국지지는 해방이후 19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된 국토공간의 이해에 필수적인 지리서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1980년이후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공간이 빠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지지를 편찬·발간해야 할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약 20년만에 「한국지리지: 충청편」이 건설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지리지 총서'의 첫 번째 성과품으로서, 대한지리학회 부설 지리연구소에서 편찬하고 건설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것이다.

충청도의 지역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개관한 이 책은 전체적으로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충청지방의 지리적 특징과 그 변화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충청지역에 대한 총론에 해당한다. 제1장에서는 충청지방의 지리적 특징, 인구와 산업, 도로와 교통체계, 도시와 촌락 등의 역사적 특징과 문화, 그리고 인구와 산업, 생활여건 등 충청도가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변화과정을 개관하고 있다.

제2장은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을 다루고 있다. 자연환경에서는 산지와 평야, 해안지역으로 구분하여 지형과 기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충청도가 가진 생태 잠재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의 관리방안, 충청지역의 자연재해 등도 기술하고 있다. 제3장은 인구에 관한 내용으로 충청도의 인구구조와 분포, 인구동태, 인구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충청도의 정주공간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촌락의 구조와 변화,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촌락의 구조와 변화에서는 촌락의 촌락의 형성과정, 촌락의 입지별 유형, 촌락의 변화에 나타난 특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변화에서는 충청도에 분포하는 도시의 입지와 발달과정, 도시분포의 패턴과 경관의 변화, 도시체계와 도시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충청지역 도시의 기능분류와 중심지 제

계에 대한 분석은 도시구조의 이해에 매우 유용한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5장은 지역경제에 관한 부분으로, 지역경제의 특성과 공업발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충청지역의 경제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전·충북·충남지역의 경제적 특성, 주요 산업별 특성, 지역공업의 특징 등을 다루고 있다.

제6장은 충청도의 교통·유통·에너지의 공급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육상·수상·항공교통을 비롯하여, 상품의 지역적 유통과 유통기관의 지역적 분포, 매스컴과 정보통신의 지역적분포, 에너지와 전력 공급체계 등이 설명되어 있다.

제7장은 관광과 여가활동으로, 충청도에 분포하는 관광자원의 현황, 관광개발계획의 특징, 지역축제의 분포와 특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행태 등이 설명되어 있다.

제8장에서는 충청도에 관한 지역정체성을 다루고 있다.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 사회의식, 충북과 충남간 지역정체성의 차이, 선거의 투표행태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제8장의 지역정체성은 기존의 지리지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충청도민의 기질과 사회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9장은 충청도의 지역구조와 지역정책에 관한 내용이고, 제10장에서는 충청도의 발전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10장의 내용은 21세기 충청권 발전의 여건, 충청권의 미래상, 행정수도의이전과 충청권 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에 한국지리 총론편이 발간된 이후 약 20여년만에 새롭게 편찬된 '한국지리지'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편찬계획과 집필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국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책은 기존의 도식적인 내용체계 및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분명한 문제의식과 관점을 갖고, 충청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당면 과제를 핵심적으로 부각시켰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징을 전개한 것도 기존의 한국지리지와는 차별된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최근 행정수도의 이전 논의, 고속철의 개통 등으로 우리의 국토공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충청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충청지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지리서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을 위한 각종의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귀중한 참고 지침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내용체계와 서술방식에 입각해 지역적 특징을 기술한 이 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연구성과이다. 특히 지역연구에 관심을 갖는 지리학자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게 귀중한 연구성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대한지리학회가 계속해서 편찬할 지리지의 내용과 질이 더욱 향상되어 정결하고 완성도가 높은 한국지리지 총서가 발간되길 기대한다.

이정록(전남대학교 교수)

최종접수일 04. 03. 15